

수확 앞둔 하동 차재배 현장

해마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설진강변은 요즘 골짜기마다 매화
와 산수유 꽃망울을 터트리며 햇빛 옷을 갈아입고 있다. 우리나라 최대
의 차산지인 경남 하동의 차밭에도 새순이 조금씩 돋아나 차 향기를 퍼
트리고 있다. 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차재배 농가를 찾았다.

새순이 움틀움틀 “바쁘다 바빠”



본격적인 차 수확을 보름여 앞둔 요즘, 농가마다 차밭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하다.

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리산 자락에
위치한 화개면 운수리의 효월수제차대
표 이기영·아래 사진 오른쪽).

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대표와 직원들
은 차 수확을 준비에 분주했다. 겨우내
묵혀뒀던 찻잎 뒤는 무쇠솥 손질을 비롯
해 산비탈마다 자리 잡고 있는 차밭의
잡초를 뽑고 거름도 뿌린다. 4월 초면 차
를 배우기 위해 물려드는 수십 명의 제
자들을 위해 숙소도 미리 치워둔다.

보통 찻잎을 따는 시기는 곡우(4월 20
일) 약 5일 전부터. 하지만 “올해 차 수확
은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라질 것 같
다”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. “올 겨울

은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워 차 맛이
어떨지 궁금하다”는 이 대표는 “찻잎은
날씨가 조금만 풀려도 하루가 다르게 속

**찾잎 채취 예년 보다 보름 빨라
“변덕스런 날씨에 차맛 어떨지”
중국 차시장 개방에 걱정 커**

속 커버려 정신없이 바빠진다”며 기대에
부푼 모습을 보이다가도 우리 차의 미래
에 대해 묻자 표정이 어두워진다.

“요즘 차 마시는 분들 사이에 중국차
바람이 지나치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.

가뜩이나 차 시장 개방으로 값싼 차들이
밀려와 우리 차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
있다”며 “제대인들이 양질의 차를 생산

**요즘 티백녹차 철 하루가 짧아
차 뒤는 일 모든 농가 매달려
가업이어 재배 30~40대 주축**

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차를
마시는 분들도 우리 차를 더욱 사랑해
달라”고 당부한다. (055)882-6247

다음으로 화개장터 입구에 분사를 두
고 있는 화개제대(대표 홍소술)로 발걸

음을 옮겼다. 5년 전부터 무료 차시운장
을 운영하며 차문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
하고 있는 화개제대는 하동 지역에서 가
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한다. 물론 그만
큼 준비해 뒀을 것도 많다. 요즘은 티
백 녹차 생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재해
있는 차밭을 일일이 둘러보고 거름을 뿌
려주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
지 모를 정도라고.

시운장에서 만난 화개제대 배회점 기
획실장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차
수확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. “지금
이 차 농사꾼에게 가장 설레면서도 바쁜 시
기입니다. 이제 곧 차 수확이 시작되면 화
개지역의 모든 농가들이 차를 따고 뒤는
일에만 매달려 시장과 가게는 물론 목욕
탕마저도 텅텅 빌 정도거든요.”

배 실장은 최근 들어 화개지역의 차
재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.
1960년대부터 차 농사를 시작한 1세대
의 뒤를 이어 30~40대의 2세대들이 가
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. 화개제대 역
시 1950년대 중반부터 차밭을 일구어 온
홍소술 대표의 뒤를 이어 넷째 아들인
홍창노 씨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
다.

“우리 차, 하동 차 일리기에 힘을 합치
자는 움직임이 차를 재배하는 사람들 사
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아무리
외국차가 밀려들어온다 할지라도 질 좋
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우리 차의
미래는 밝을 것입니다.” (055)883-2233

주말에 가족과 함께 향긋한 차 향기를
넘치는 하동의 차 농가를 찾아보자. 시
골 인심이 더해진 따뜻한 차 한 잔으로
마음까지 푸근해질 것이다.

하동=여수령 기자·사진=박재완 기자



3월 19일 개관한 '아름다운 차 박물관' 내부 모습.

사진=박재완 기자

문화 1번지에 문연 ‘차 박물관’

‘아름다운 차 박물관’

**동양 다구 200여점 전시
티베트 코너 눈여겨 볼만
신관장, 북촌에도 열 예정**

동양의 차문화를 한자리에 즐길 수 있
는 차 박물관이 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에
문을 열었다.

3월 19일 개관한 ‘아름다운 차 박물관(관
장 신영수)’은 한옥을 개조한 건물에 우리
나라를 비롯한 중국, 일본, 티베트 등 동양의
다양한 다구 200여 점 감상할 수 있는 전
시실과 다실(茶室) 등을 갖추고 있다. 특히
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티베트 차 문화를 소
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.

19일 열린 개관식에는 불교텔레비전 사
장 성우 스님과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
님, 마음고요선생 정복 스님을 비롯한 100
여 명이 참석해 차 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했
다. 지원 스님은 “인사동을 찾는 관광객들
과 외국인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
다”고 말했다.

티베트박물관과 성(性)박물관 등을 운영하
고 있는 신영수(49·위 사진 맨 왼쪽)는 “외

국의 차문화를 접하고 다구들을 하나둘씩
모으다보니 차 전문박물관을 개관해야겠
다는 생각이 들었다”며 “전시실이 넓진 않
지만 많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
다양한 차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려
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신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안으
로 서울 북촌(北村)에도 차 박물관을 열 예
정이다. ‘아름다운 차 박물관’이 소박하고
단아한 다구들 위주로 전시한다면, 북촌에
문을 열 박물관에서는 천목다완이나 철보
자사 등 화려한 색상의 다구들을 선보일 계
획이라고.

박물관장은 앞으로 국악과 티베트 음악 공
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할 예정이
다. 개관 오전 9시~오후 9시까지. 휴관 없
음. 관람료 5천원. (02)735-6678 www.
teamuseum.net



여수령 기자

문경시, 한국전통차사발축전

문경시와 문경새재축제추진위원회는 오
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문경도자기전시관
에서 ‘2004 한국전통차사발축전’을 개최
한다. 이번 축제에서는 도자기 전시를 비롯
해 전통도자기 학술대회, 한·일도자기 교

류전, 도자기 제작 체험, 가족다례경연대회
등이 펼쳐진다.

이에 앞서 문경시는 차사발축전에 전시
할 차사발 및 다기 공모전을 열고 있다. 참
가 희망자는 작품과 출품료(작품당 3만원)
를 4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. (054)550-
6393

보성다향제, 5월 1~9일

올해로 30회를 맞는 보성다향제(www.
boseongjeonnam.kr)가 5월 1일부터 9일까
지 ‘차와 사람, 자연이 함께 하는 열린 만
남’을 주제로 전라남도 보성군 일대에서
개최된다.

보성체육공원과 대원사 등에서 열리는

이번 행사에는 차문화행사, 녹차밭 푸른음
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마련될 예정
이다. 또한 작년에 이어 차의 풍작을 기원하
는 다신제와 국제 차요리축제, 국제명차신
정, 차예절 경연대회, 한·중·일 차문화교
류전 등도 마련된다. 지난 1985년부터 매년
개최되어 온 보성다향제는 지난해 2004문
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됐다. (061)850-5223



사진

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범비가 오는

동해사 삼사순례



동해사 갈로 범비의 성지



- ◎ 동해사에서
낙산사 10분 소요
유유암 15분 소요
- ◎ 대영주차장 원비
- ◎ 바닷가 방생지
5분 소요

삼보전에 귀의하옵고

매년 10월 12일 ~ 11월 20일까지 밤, 낮 없이 범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
한 무지개 발현,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,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
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**동해사!**

범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듯 동해사에 오시
어 삼사순례도 하시고 10분기도로 한가지소원을 몸소 체험해 보세요.

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

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**033-672-2900**

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.

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

삼사순례 및 방생도량

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학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
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.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
서 국래민안과 우주풍조를 기원드리바 있습니다.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
(동악산)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, 군수, 지역유지들
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
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
있습니다.

치악산 국형사는 **평 보은의
유래에 걸맞게 평 방생 장소
로** 최적지입니다. 전국의 불
자님께서는 감신년 새해를 맞
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
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
하시기 바랍니다.

국형사 주지 합장

▶ **대형주차장 원비**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**033-747-1815**
▶ **입장료 무료**

※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.

